

소위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에 다녀와서

—유럽의 결핵관리 현장을 찾아—

박 영 길 / 결핵연구원 분자생물과



▲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내내 기억하게 해주는 맨 왼쪽 이란친구와 벨기에 박물관 앞에서.

짧은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 다녀와서 그 나라를 평가한다는 것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일부를 만지고 코끼리가 어떻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서 매우 조심스럽고 잘못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

제목에 소위라고 붙인 이유는 실제로

는 풍차를 두 개밖에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네덜란드에 간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유럽에서 개최되는 유전자 탐색기술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결핵연구소에 방문하여 한 수 배우고 그들과 친분을 맺고 오는 것이다.

네덜란드에 가고 오는 동안 이들의 여유가 있었고 처음으로 가는 유럽인지라 가능한 많은 것을 보려하였다. 따라서 바로 네덜란드에 가지 않고 프랑스 비행기를 선택하였다. 파리에서 바로 기차를 타고 벨기에 부르셀에 갔다. 역 승무원들은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큰 불편없이 진행되었다.

기차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년남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영어를 상당히 잘 했다. 아버지는 영국인이고 어머니는 독일인이며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자신은 프랑스여인과 결혼해서 딸 넷에 아들 하나를 두고 프랑스에 살고 있단다. 나보다 딸이 많은 사람을 만나니 괜히 반가웠다. 그는 연구소의 프로젝트와 그 연구비를 담당할 자금 지원소를 중개해 주는 일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직업이다. 선진국에는 직업도 다양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벨기에는 밤 10시에 도착하였다.

처음 오는 지역에 밤중이라 약간의 두려움을 가졌다. 어떻게 오늘밤을 보내나 걱정하면서 안내책자를 뒤졌다. 가장 싼 호텔을 찾아 택시 운전사에게 보여주며 그곳으로 가자고 했다. 그곳에 가니 이미 방은 다 차고 빈방이 없었다. 낭패였다. 바로 그때 저쪽에서 사람이 오고 있었다. 사정이야기를 하니 그가 호텔을 찾아주기로 했다. 한시간 이상을 헤매다가 겨우 빈 방 있는 호텔을 찾았다. 나를 도와준 이 친구는 이란사람이며 서울에도 3번이나 방문한 적이 있단다. 벨기에는 7년동안 살았고 아직도 미혼인 대

학생이다. 그는 이튿날 오후에 나를 만나 벨기에 관광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나는 오후에는 네덜란드에 가야 하기 때문에 오전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였고 그는 이튿날 아침에 학교 수업도 빼먹고 나를 위해서 호텔에 와 주었다. 말로만 유명한 오종누는 소년상도 보았고 좀 떨어진 곳에 있는 EC 본부에도 가 보았다. 그 친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느냐고 물어보았는데 그의 대답은 자신이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한국인들이 친절하게 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암스테르담행 기차를 타기 위해 그 친구와 아쉬운 작별인사를 나누고 있는 동안 저쪽에 한국 남학생 한명과 여학생 두명이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남학생만 기차에 올라탔다. 기차안에서 그 남학생 옆으로 가서 앉았고 서로 반가와 하면서 이야기를 하였다. 이 학생은 거의 무전여행을 기한도 정하지 않고 다닌단다. 부모님 도움을 한푼도 받지 않고 노동으로 돈을 벌어 비행기 타고 와서는 유럽에서 일하면서 돈 벌고 그 돈으로 또 여행을 한다. 외국어도 영어는 물론이고 불어, 독일어, 일본어를 조금씩은 다 할 줄 알고 여러나라 친구를 두었단다. 그런 모습의 한국 청년을 만나니 웬지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하여 숙소를 정하기 위해 안내책자를 뒤져 가면서 여러군데 전화를 하였다.

이틀동안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결핵 연구에 있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도



▲ 실험실에서 사람들과 기념사진. 무슨 말을 했기에 이렇게 즐거운 걸까.

들었다. PCR과 비슷한 NASBA라는 것에 대하여 들었고, 돌연변이 연구에 필요한 기술 CFLP에 대해서도 들었다. NASBA를 이용한 결핵균 진단에 관한 논문이 있었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Royal Tropical Institute에 있는 Klatser 박사가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그곳에 전화하여 방문하겠다고 하였고 Klatser 박사가 흔쾌히 승락해주어 그 다음날 찾아갔다. 연구소는 크고 깨끗하였다. 이 큰 연구소에 한국인 과학자 한명쯤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Klatser 박사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매우 바쁘게 일하였고 잠깐씩 시간 있을 때 마다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 실험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협동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그는 당뇨병을 종이 스틱에 오줌만 묻히면 색깔변화로 알 수 있듯이, 혈청만 묻

히면 색깔변화로 결핵여부를 알 수 있는 종이 스틱을 개발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왜 어려운지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실패 위에서 탄생하는 것이 성공 아니던가?

토요일과 일요일은 시간여유가 있

어 암스테르담을 돌아다녔다.

렘бран트 박물관을 갔다. 가는 동안 길을 잘 몰라 자전거를 타고 가는 여학생을 불러 물어 보았더니, 자기 뒤에 타라는 것이다. 그들은 남녀노소 할 것이 없이 10km 정도는 언제나 자전거로 다닌다. 교통문제 해결되고 공기도 맑아지고 국민들 체력 증가되니 자전거를 타고 다니므로써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가. 렘бран트 미술을 감상하였다. 렘бран트는 1600년대 사람이다. 다음날은 1800년대 사람 고희의 미술을 감상하였다. 내가 감명받은 것은 그들의 그림이 아니라 후손들이 그 미술품들을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도 그 당시의 화가가 있다. 그림에 문외한인 나였지만 1700년대 화가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이 그것보다 훨씬 멋이 있고 재미 있으며 볼 만한 가

치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암스테르담이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거리의 벽은 낙서 투성이고 운하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에서 마약도 허용되는 자유의 거리를 약간의 흥분과 약간의 두려움을 갖고 가 보았다. 군데군데 집시들이 저저분한 옷차림과 긴 머리 덩수룩한 수염을 하고 앉아 있다.

그리고 이번 출장의 두번째 목적지인 빌트호브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소를 찾아갔다. 연구소는 도시에서 떨어진 아름다운 숲속에 있었다. 역시 크고 깨끗하였다. 연구소의 Soolingen박사가 반갑게 맞아 주었다. Soolingen 박사는 결핵균 RFLP 기술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이다.

네덜란드의 결핵환자는 1,800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분리된 결핵균을 첨단기술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분석 분리하고 모두 컴퓨터에 저장한다. 새로운 결핵환자가 생기면 그 환자의 결핵균을 분석하고 그 균과 같은 균을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찾아내어 전염경로를 알아낸다고 한다. 최근에는 여행자들이 많아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였다. 연구소에서 RFLP, Spoligotyping 등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실험과정을 보니 우리의 기술상의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그래서 기술상의 어려운 점, 컴퓨터 분

석등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Soolingen박사도 25km 거리를 자전거로 통근한다고 한다. 하루는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해서, 실험실에 있는 다른 사람의 차로 식당에 갔다. 그 차는 둘만 타는 작은 차였다. 시동도 제대로 걸리지 않는 고물차였다. 몇년된 차냐고 물었더니 차그만치 34년 된 차란다. 그들의 검소한 생활태도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다. 실험실에는 쿠바에서 온 친구도 있었는데 같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 친구가 요리를 해주어 편하게 지냈다.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시 파리로 돌아왔고 하루의 여유가 있어 파리 시내를 모두 돌아다녔다.

세느강은 그다지 깨끗하지도 않았고 거리도 저저분하고 여자들이 담배를 물고 다니는 모습이 그리 아름답지도 않았다.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다. 거리에서 이탈리아인 화가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국에 다녀 갔다고 한다. 서울에 대한 인상은 교통때문에 고생을 무척 하였고, 그는 오히려 한국의 농촌에 다니면서 친절한 한국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았다고 하였다. 또 한국의 아름다운 농촌풍경을 그려 이탈리아에 가서 팔았다고 하였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의외로 많았고, 그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더 깨끗한 나라, 안전한 나라, 편안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볼 것이 많은 나라, 가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